



김영록 전남도지사와 전남지역 국회의원들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컨싱턴호텔에서 광주·전남 반도체 특화단지 지정을 위한 공동건의문을 발표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전남도 제공

“쌀값 안정 위해 벼 재고 전량 수매” “균형발전 광주·전남에 반도체단지”

김영록 지사-전남 국회의원 공동건의문

식량 생산기반 책임 강조
첨단산업 지방 우선 촉구

가 그치지 않고 있다”며 “농업인들이 안정된 환경에서 농사에 전념하기 위해서는 쌀값은 최소 21만원이 유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부 시장격리에도 30만톤에 이르는 구곡이 쌓여 신곡 출하 시 쌀값 하락이 자명하게 예측된다”며 “정부는 신곡이 출하되는 9월 이전까지 재고량 전량을 수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시장격리가 되려 쌀값 하락을 부추기지 않도록 매년 9월까지 쌀 공급과잉 예상 물량에 대한 격리 여부를 결정하고, 공공비축미곡 매입방식으로 격리를 추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 지사 등은 “쌀값 마지노선인 18만원이 무너졌고 쌀 수요는 지속해서 감소하는 반면 생산비와 인건비는 꾸준히 상승해 쌀 농가의 여건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며 “쌀값 하락은 식량 생산기반이 무너질 수 있는 중차대한 문제인 만큼 정부가 책임감을 느끼고 적극적인 수급 안정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광주·전남 반도체 특화단지 지정에 대해서 “국가균형발전을 이루고 소멸위기에 처한 지방과 지방대학을 살리기 위해서는 반도체를 비롯한 미래 첨단산업을 지방에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면서 “광주·전남은 미래 인공지능 반도체, 전력반도체 등 시스템 반도체 분야

에 타 지역보다 월등한 성장 잠재력을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첨단 전략산업 육성이 수도권과 지방간 불균형 해소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국가첨단전략산업법에 따라 반도체 특화단지를 광주·전남에 최우선으로 지정하고, 지방과 지방대학 소멸을 막기 위한 반도체학과 신설은 비수도권에 우선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건의문 제출에는 김 지사와 민주당 소속 김승남·김원익·주철현·김희재·소병철·서동용·신정훈·이개호·윤재갑·서삼석 국회의원이 참여했다.

/정근산 기자

“광주시민께 죄송...약속 안 잊어”

‘잠행’ 이준석, 무등산 방문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 정계로 직무 정지를 당한 이후 잠행 중인 이준석 대표가 무등산 방문 사실을 13일 공개했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무등산 등반 사진과 함께 “정초에 왔던 무등산, 여름에 다시 한번 꼭 외뵙아겠다고 얘기했었다. 원래 7월에는 광주에 했던 약속들을 풀어내려고 차근차근 준비 중이었는데 광주시민들께 죄송하다. 조금 늦어질 뿐 잊지 않겠다”고 썼다.

그는 “앞으로도 무등산의 자락 하나 하나가 수락산처럼 익숙해질 때까지 꾸준히 찾아와서 오르겠다”고 다짐했다. 이 대표가 정계 기간 무등산을 찾은



이도로 풀이된다.

그는 대선을 앞둔 지난 2월 1일 무등산에 올라 호남 득표율 20% 이상을 달성하겠다는 각오를 밝힌 바 있다.

윤리위 결정이 나온 지난 8일부터 다섯째 잠행을 이어 가고 있는 이 대표가 자신의 행적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는 이후 목표를 거쳐 제2주도를 찾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용현 기자

사실을 일부러 공개한 것은 2030 세대와 함께 본인이 선거 기간 공언한 호남 공략, 이른바 ‘서진’ 정책을 상기시키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기후행동 캠페인’ 오늘 발대식

시, 생활 속 자원순환 강조

광주시와광주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와 광주시후회기비상행동, 12개 마을공동체가 14일 시청 무등홀에서 ‘마을과 함께하는 기후행동 캠페인 발대식 및 협약식’을 개최한다.

이번 캠페인은 기후변화에 대한 심각성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투명페트병을 매개로 올바른 분리배출 실천과 고품질 자원화 과정을 공유해 생활 속 자원순환 실천을 돕기 위해 추진된다.

캠페인에 참여하는 마을공동체는 ▲농성1동주민자치회 ▲동온마을 기후환경연합공동체 이음 ▲용봉동 마을발전소 ▲마지초등학교 ▲문산마을 네트워크 ▲사직에너지전환마을 ▲상무2동 자원봉사캠프 ▲월산5동 주민

자치회 ▲인양유치원 ▲지한초등학교 ▲지평동주민자치회 ▲클로버봉사단이다.

이들 마을공동체는 오는 10월까지 투명페트병 100% 재활용과 쓰레기제로(ZERO)를 목표로 마을별 거점공간에서 주 1-2회 올바른 분리배출 교육과 깨끗한 투명페트병을 모으는 실천운동을 펼치고 희망자원, 롯데캐시칼 등 재활용 기업을 거쳐 고품질 자원으로 재탄생하는 과정 등을 공유하게 된다.

투명페트병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매월 각 공동체를 통해 분리실적을 조사해 수거 체계를 개선하는 정책자료로 활용하고, 수거된 페트병의 판매 수익금은 참여 공동체의 의견을 반영해 지역 기부할 예정이다. /김용현 기자

‘흑산공항·첨단산업’ 현안 해법 어찌나

지역의원 상임위 교통정리
광주, 산자·국방 등 골고루
전남, 환경·과기정통 전문

광주·전남지역 국회의원들의 21대 국회 후반기 상임위원회 배치가 사실상 마무리 됐다.

광주는 7~8개 상임위로 골고루 배치된 반면 전남은 전반기에 이어 후반기에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설립현상이 뚜렷해 지역 현안 해법찾기에 난항도 우려된다.

13일 지역정계에 따르면 후반기 국회 상임위 역시 전반기와 마찬가지로 13개 전임, 3개 겸임, 2개 특위 등 총 18개 상임위 체계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광주에서는 7~8개, 전남에서는 5개 상임위로 분산 배치될 것으로 보인다.

광주에서는 윤영덕 의원(동남갑)이 정무위, 송갑석 의원(서구갑) 국방위, 이병훈 의원(동남을) 문화체육관광

위, 조오섭 의원(북구갑) 국토교통위, 이형석 의원(북구을) 행정안전위, 이용빈 의원(광산갑)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에 배치됐다.

무소속 민형배(광산을)·양향자 의원(서구을)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환경노동위 배치가 유력시되고 있다.

최대 지역 현안 중 하나인 도심 군공항 이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방위는 당초 지원자가 전무했으나 민주당 의원간 조율을 거쳐 시당위원장인 송의원이 맡기로 했다.

전남에서는 서삼석(영암·무안·신안)·신정훈(나주·화순)·김승남(고흥·보성·장흥·강진)·주철현(여수갑)·윤재갑 의원(해남·완도·진도)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에 배정됐다.

전반기 농해수위 소속이었던 이개호 의원(담양·함평·영광·장성)은 행정안전위로, 목포대 의대 유치를 공약으로 내걸었던 김원익 의원(목포)은 전반기에 이어 후반기에도 보건복지위 소속으로 배치됐다. 김희재(여수을)·서동영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을)도 전반기와 같이 각각 국토교통위와 교육위에 배정돼 2년동안 더 같은 상임위에서 활동하게 됐다.

이달 초 상임위 신청 당시 광주는 산자위, 전남은 농해수위에 각각 3명, 5명이 신청해 상임위 편중 현상이 우려됐으나 광주는 내부 논의를 거쳐 어느 정도 정리가 이뤄진 반면 전남은 농해수위 쏠림이 현실화됐다. 핵심 현안에 속하는 흑산공항 건설과 관련된 환경노동위는 애당초 지원자도, 추후 배정자도 없어 정부적 해법찾기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또 미래먹거리인 첨단산업과 과학기술과 깊이 연관된 산자위와 과기정통위 역시 전무해 관련 사업 예산 확보에 난항이 우려된다.

지역 정계 관계자는 “일부 상임위 쏠림 현상이 여전히 안타깝다”며 “면 안목에서 상임위 배정에 대한 대승적 안배와 조정이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정근산 기자

전남도, ‘우수기업-청년 연계’ 일자리사업 추진

국비 2억7천만원 지원

전남도가 도내 우수기업과 젊은 인재를 연계해 일자리를 늘리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기업-청년 희망이음 지원사업’을 올해 처음으로 추진한다.

13일 전남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가 전국을 대상으로 공모한 해당 사업은 지역 기업에 대한 인식을 개

선하고 우수 기업을 발굴해 청년 일자리와 연계하는 것이 목적이다.

전남도는 산업부 검토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난 4월 사업에 선정됐다.

전남도는 도내 고교생, 대학생, 일반인 등 청년들에게 지역 유망기업 탐방과 직무 경험 기회를 제공하고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발굴해 홍보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소요 예산 2억7,000만원

을 전액 국비로 지원받는다.

전남도는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도교육청, 대학이 함께하는 특별전담팀(TF)을 구성하고, 현재 청년·기업 모집과 사업 추진 방향, 출향청년 대상 홍보 방안 등을 협의하고 있다.

계획이 구체화 되면 오는 9월 우수기업 모집, 10월 청년 모집 과정을 거쳐 11월부터 본격 사업에 착수한다.

/오선우 기자

www.hdamis.com

행복을 나누는 따뜻한기업

현대아미스는 오늘도 정상을 향해 도전합니다!

공동주택관리

전기안전관리

소방시설관리

경비용역

청소·미화

소독·방역

www.hdamis.com

383-3344

현대아미스그룹

현대아미스(주)	아미스(주)	(주)한솔티엠에스
한솔엘리베이터(주)	(주)아미스능력개발원	(주)도곡전기엔지니어링
(주)아미스개발	메인기획협동조합	복지TV오남방송

광주 서구 상무대로 673번길 8 (마북동 173-8번지)
T.062)225-1050 FAX.062)463-7300

회장 김우열